
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)

- ▶ 고용률(61.4%, +0.1%p)과 15~64세 고용률(69.9%, +0.3%p) 모두 상승
- ▶ 취업자(+9천명)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축소
 -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의 감소 전환 및 청년층 감소폭 확대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3천명(+0.4%) 증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별	여성(+5만 6천명)	남성(-4만 7천명)
연령	30대(+3만 9천명), 50대(+3만명), 60세이상(+1만 6천명), 40대(+1천명)	청년(-7만 7천명)
산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7만명), 제조업(+2만 6천명)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6천명), 건설업(-1만 8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-5천명)
종사상지위	자영업자(+2만 6천명), 상용근로자(+3천명) 고용원 有 자영업자: +5천명 고용원 無 자영업자: +2만 1천명	무급가족종사자(-1만 1천명), 임시근로자(-4천명), 일용근로자(-6천명)
직업	관리자·전문가(+4만 8천명), 단순종사자(+1만 2천명), 사무종사자(+6천명)	서비스·판매 종사자(-3만 5천명), 기능원(-2만 2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0.2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이상(+2만 3천명), 일시휴직자(+1만 9천명)	36시간 미만(-3만 3천명)



청년	(천명)	취업자수												증감		
		'23	'24	'25.4	5	6	7	8	9	10	11	12	'26.1		2	3
		891	862	808	832	825	827	802	796	781	778	773	736	742	745	731
		-5	-29	-74	-26	-15	-17	-62	-44	-61	-52	-50	-63	-55	-55	-77

전국

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09만 8천명 · 7만 8천명 감소(0.2%↓)	929만 9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3천명 감소(0.4%↓)
15세이상 인구	4,596만 6천명 · 24만 6천명 증가(0.5%↑)	845만 3천명 (전국의 18.4%) · 3천명 증가(0.0%↑)
경제활동인구	2,981만 3천명 · 7만 2천명 증가(0.2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9%(0.2%p↓) (월) 청년층 47.0%(1.8%p↓)	538만 1천명 (전국의 18.0%) · 1만 1천명 감소(0.2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3.7%(0.1%p↓)
취업자	2,896만 1천명 · 7만 4천명 증가(0.3%↑) - 고용률 63.0%(0.2%p↓) - 15~64세 고용률 70.0%(0.1%p↑) (월) 청년층 43.7%(1.6%p↓)	518만 9천명 (전국의 17.9%) · 9천명 증가(0.2%↑) - 고용률 61.4%(0.1%p↑) - 15~64세 고용률 69.9%(0.3%p↑)
실업자	85만 3천명 · 2천명 감소(0.2%↓) - 실업률 2.9%(0.0%p↑) (월) 청년층 7.1%(0.2%p↓)	19만 2천명 (전국의 22.5%) · 1만 9천명 감소(9.1%↓) - 실업률 3.6%(0.3%p↓)
비경제활동인구	1,615만 2천명 · 17만 4천명 증가(1.1%↑)	307만 2천명 (전국의 19.0%) · 1만 3천명 증가(0.4%↑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경기(65.5) > 인천(65.4) > 서울(63.7) = 광주(63.7) > 대전(63.5) > 울산(62.5) > 대구(60.0) > 부산(59.8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4) > 서울(69.9) > 인천(69.5) > 울산(68.3) > 부산(68.2) > 대전(67.9) = 광주(67.9) > 대구(65.8)
- 실업률(%)
서울(3.6) > 인천(3.2) > 경기(3.1) > 광주(3.0) > 대전(2.9) > 부산(2.7) > 대구(2.6) > 울산(2.4)

총괄

고용률은 61.4%(+0.1%p)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, 전국(63.0%, -0.2%p)을 1.6%p 하회

- 15~64세 고용률은 69.9%로 0.3%p 상승했으나, 전국(70.0%, +0.1%p)을 0.1%p 하회

실업률은 3.6%(-0.3%p)로 9개월 연속 하락했고, 전국 실업률(2.9%, 0.0%p)을 0.7%p 상회

취업자수

취업자(518만 9천명, +9천명) 증가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7만명)과 여성(+5만 6천명) 중심의 증가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-72 (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 (12)-30 ('26.1)-17 (2)22 (3)70 (4)9

* (전국) 취업자수(+7만 4천명)는 16개월만에 최소 증가. 보건복지업 중심의 증가를 지속하나, 농림·어업과 전문·과학서비스업, 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,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도소매, 숙박·음식도 감소 확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 (12)168 ('26.1)108 (2)234 (3)206 (4)74

산업별

-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의 감소 전환
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과 건설업은 감소폭 확대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7만명, +3.1%)은 돌봄·복지 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증가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 (12)36 ('26.1)27 (2)77 (3)82 (4)70

▶ 제조업(+2만 6천명, +7.1%)은 '24.12월~'25.6월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5개월 연속 증가하나 40만명을 하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 (12)1 ('26.1)13 (2)13 (3)21 (4)26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6천명, -6.4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9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50 (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 (12)-41 ('26.1)-62 (2)-69 (3)-54 (4)-66

▶ 건설업(-1만 8천명, -5.9%)은 건설경기 부진 지속으로 18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-35 (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 (12)-36 ('26.1)-29 (2)-18 (3)-5 (4)-18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-5천명, -0.4%)은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으로 감소 전환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4)-3 (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 (12)13 ('26.1)35 (2)19 (3)24 (4)-5

* 소비자감리지수(CCSI): ('25.4)93.6 (5)101.7 (6)108.6 (7)110.7 (8)111.2 (9)110.0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5.1)110.8 (2)112.1 (3)107.0 (4)99.2

* (전국) 보건·복지(+26만 1천명), 예술·스포츠(+5만 4천명), 정보통신(+1만 8천명)등의 증가 지속

전문과학(-11만 5천명), 도소매(-5만 2천명), 숙박음식(-2만 9천명), 제조(-5만 5천명)는 감소 확대, 운수창고(+1만 8천명)는 증가폭 축소

연령별

• 청년층(-7만 7천명)은 24개월 연속 감소, 20~24세(-4만명), 25~29세(-3만명) 모두 감소폭 확대

• 30대(+3만 9천명), 40대(+1천명), 50대(+3만명)는 증가 지속, 60세 이상(+1만 6천명)는 증가폭 축소

* (전국) 청년층(-19만 4천명)은 42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감소폭도 확대, 40대(-1만 7천명)는 2개월 연속 감소

60세 이상(+18만 9천명), 30대(+8만 4천명), 50대(+1만 1천명)는 증가 지속

종사상
지위

• 상용직(+3천명)은 2개월 연속 증가

• 고용원有(+5천명), 고용원無(+2만 1천명) 모두 증가하며 자영업자(+2만 6천명) 증가

• 무급가족종사자(-1만 1천명)는 4개월 연속 감소, 임시직(-4천명)과 일용직(-6천명)은 감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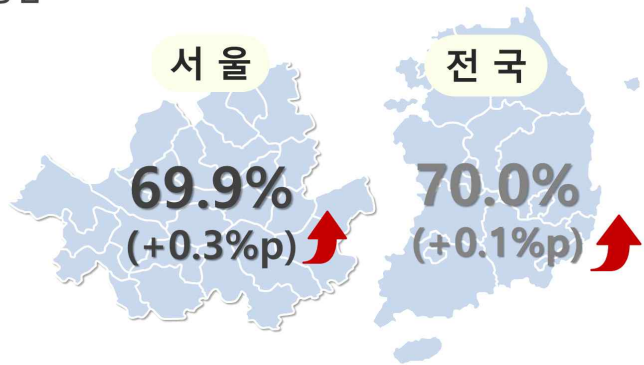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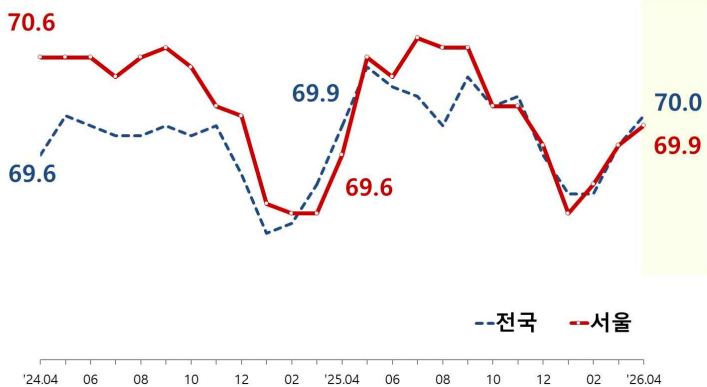
* (전국) 상용직(+6만 2천명)은 증가 지속하나 증가폭 축소, 자영업자(+14만 1천명)와 일용직(+2만 2천명)은 증가 지속

임시직(-12만 7천명)과 무급가족종사자(-2만 4천명)는 감소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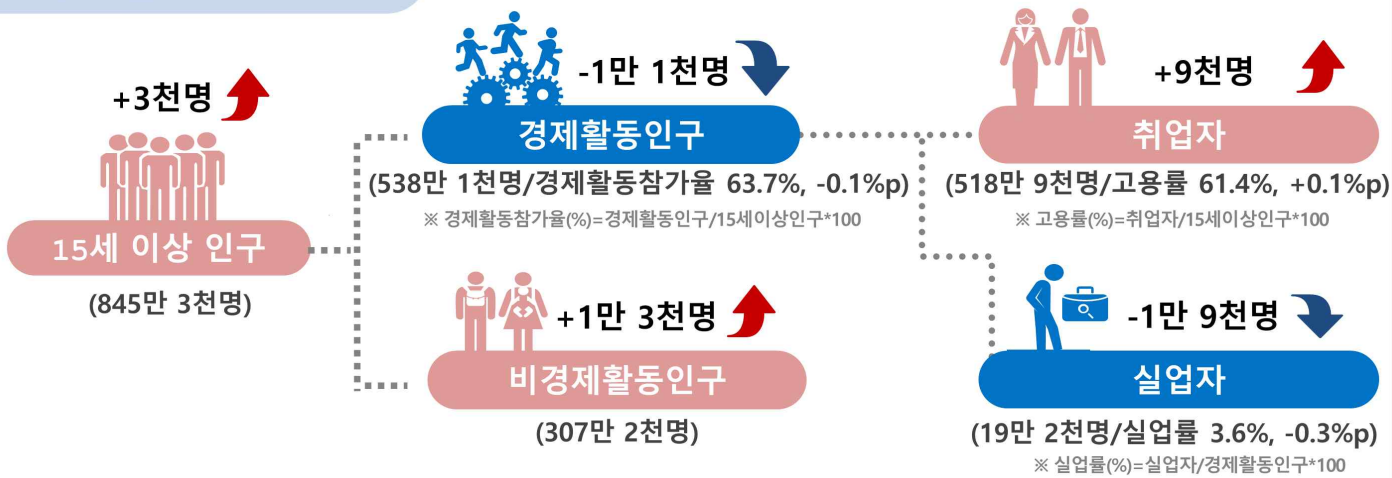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